

기도의 달

믿음성장,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모든상황 막막해도
 흔들림은 떨지마세
 우리주님 다아시니
 유린그저 기도하세

“사자가 사방에서 와서... 불에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February 7,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호세아 5:15-6:3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539장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통일찬송 483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현근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여호수아 20:1-6

도피성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2021년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기도합니다

- 2021년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2021년 표어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이고 주제 말씀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입니다. 기억하고 사역합니다.
-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온라인 예배**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 2세 신앙교육 E-Learning** 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 2021 사역**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가정, 교회와 사역이 되도록 **함께 섬깁시다.**

2월의 사역 - 만남과 나눔주간(31-6), 성장과 성숙 주간(7-13), 제직/공동의회(2/14)

♥ **생일 축하** ♥ 정시현(5) 유동숙(24) 구민경(28)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1/31	2/7	2/14	2/21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금요일예배기도	2/5	2/12	2/19	2/26
	오정은집사	최선운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31	2/7	2/14	2/21
	홍현근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2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일어나 먹으라”** / 열왕기상 19:5-8

엘리아 선지자는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보였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물에 젖은 제물과 제단을 태우셨다. 엘리아는 말이 끄는 왕의 수레 앞을 달렸다. 이를 통해 거짓 신들을 향한 숭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엘리아는 남쪽 광야로, 외로운 로뎀나무 아래로, 시내산으로 길을 떠났다. 앞서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그릇 시내로,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그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셨다. 그런데 엘리아는 스스로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로 향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이세벨 왕후의 칼날을 피해, 참 선지자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착각, 삶보다는 죽음이 더 낫다는 영적 침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아를 보살피신다.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리고 그를 깨우치신다.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제시하신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달은 곳에 서 있나?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눈을 열어 앞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닫힌 마음을 열어 깨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용기와 능력을 주시며 일어나 전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 호세아 5:15 - 6:3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우상숭배, 불의, 부정, 등의 죄를 범해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혹시라도 사랑의 회초리를 맞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 호세아 5:15-6:3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위한 과정이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겪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보통 고난과 형벌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끝나고 회복은 곧 시작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회복 시키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질 때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을 때 깨달아,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서자.

만약 징계의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해 우상숭배와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애쓰자.** 새벽 빛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삶을 운택하게 만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약속, 회복과 치유는 확실하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호세아 6:1-3 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맞게 된다. 형벌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고 가혹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마음을 돌이키자.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회복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상황에 서 있다면 빨리 아버지께로 돌이키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우리에게 끈은 하나 밖에 없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실패로, 좌절로, 멸망으로 이끄는 몇 가지 함정들이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운명아, 저리 비켜. 내가 간다.’ 이런 사람들이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 미숙한 것이다. 나폴레옹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천재였고, 아주 성실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보니 도를 지나쳐 사람들이 좋아 하는 근사한 말을 남겼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미숙한 아이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 슈퍼맨, 마징가 Z 같은 만화 영화 보고 목에다 보자기 묶고 나르는 흉내 내는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보자기만 묶으면 나는 줄로 생각한다. 미숙해서 그렇다. 나폴레옹의 말도 그 같은 미숙함이다. 이게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첫 번째 원인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둘째 함정은 세상의 꾀, 요령,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다.** 악인의 꾀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하지만 시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지만,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모양은 제대로 갖췄지만,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린다. 모양새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속이 없다. 악인의 꾀를 좇아 살게 되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좇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다.

셋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물주’이다. 실다 보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보인다.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끈을 잘 붙잡으면 성공 하리라 생각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

후배 목사 중 한 명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 과정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 자리도 없고 마땅한 임지도 없어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낙심했었다. 선배라고 날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툭 던졌다. “끈 떨어진 연 같아요. 제 마음이.”

사랑하는 후배라서 직언을 해줬다. “네가 끊어졌다는 끈은 끈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 끈이 아니었어.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을 붙잡아야 살아. 그 끈은 보이지 않지만,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지.”

내가 얘기했던 **끈은 하나님**이었다. 우리는 하나님만 끈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썩은 동아줄인데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보인다고 그걸 끈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

넷째로 ‘모세 신드롬’이라고 말하고 싶다.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난 그냥 양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 네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길이 없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꼭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전제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전제가 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세의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구원 얻는 삶의 유일한 길이고 지혜이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계속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낼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공격해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김동호 목사, 『날마다 기막힌 새벽 2』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고백하며
무엇을 얻었고,
함께하길 원하는지
잠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십자가를 가껴이 여기며
십자가를 자랑 삼아
지고자길 원하는 제자가 아니었는지.
한없이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려했던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고령의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원주교회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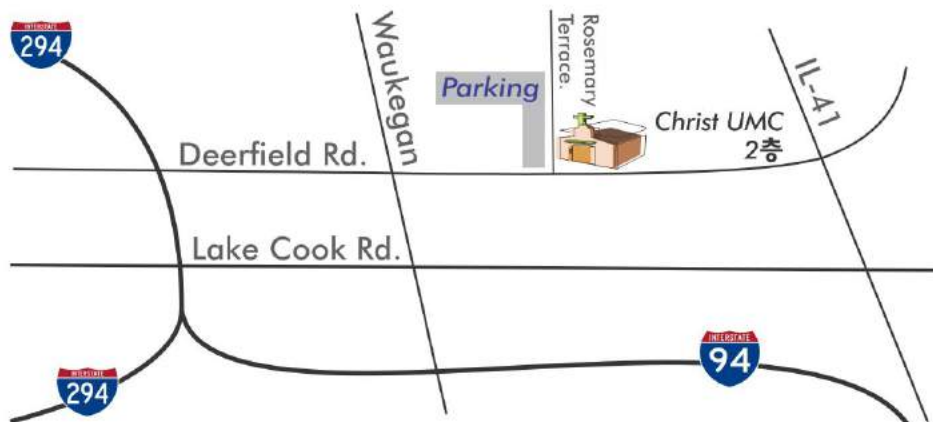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